

“드라마 같은 삶... 성공의 원동력은 긍정 마인드”

컬처 & 피플

PD 주철환



주철환 PD는 진절만 참 사람이다. 최근 서울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받은 인상이 그랬다. 그는 약속 장소를 ‘매우’ 세세하고 다정하게 알려주었다.

또 하나 그는 매우 젊어 보였다.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은 6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다. 과장하지 않고 그는 40대 중후반으로 보였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정현중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처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죠. 스치는 인연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수많은 경험과 생각 그리고 그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옵니다.”

스타 PD 주철환 씨는 외모보다 생각이 젊었다. 누군가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의 캐릭터를 닮았다고도 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선생님의 분위기가 감돈다는 말이었다.

‘우정의 무대’ ‘퀴즈 아카데미’ ‘일요일 일요일 밤에’ 등...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주 PD가 담당했던 프로다. 지금의 40대, 50대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예능 프로였다. 변화무쌍한 방송계에서 살아남는 것도 어렵지만 30년이 넘도록 스타 PD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기적에 가깝다.

그가 제작했던 프로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지닌다. 당시의 화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극히 미소를 짓게 한다.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일요일 오후 4시에서 8시에 이르는 황금 시간대에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꼼짝없이 붙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프로그램 하나 히트시키기도 힘든 방송계에서 그는 연타석도 모자라 세타석이나 홈런을 때렸다. 말 그대로 방송계의 흥행 보증수표였다.

“저는 능력을 타고 난 게 아니라 복이 많

은 사람입니다.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PD라는 직업은 여러 사람과 함께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자칫 부정적인 말이나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방송은 아이디어와 순발력 뿐 아니라 감정은 사람입니다.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PD라는 직업은 여러 사람과 함께 방송을 만들기 때문에 자칫 부정적인 말이나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방송은 아이디어와 순발력 뿐 아니라 감정은

PD는 시청자들에게

행복한 시간표 짜주는 사람

자신부터 즐겁게 생활하고

대중이 뭘 원하는지 고민해야

과 느낌이 교류되는 역동적인 장이잖아요. 타인을 배려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는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 후 한때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교단에 섰다. 군 복무를 마치고 문화방송 PD로 입사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 그를 방송계로 이끌었다. 이후 그는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한다.

2000년 이화여대 언론영상학부 자리를 옮겼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OBS 사장을 역임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JTBC 대 PD로 명함을 바꿨다.

한마디로 변화무쌍한 드라마 같은 삶이다. 60대임에도 그는 여전히 방송계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프로를 만든다.

나름의 비책이 있을 법한데, 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쾌하다.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작했던 ‘퀴즈 아카데미’는 그 같은 사례 가운데 하나다.

“당시 퀴즈아카데미는 장학퀴즈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장학퀴즈가 고등학생들의

문제풀이식 경연장이었다면 퀴즈아카데미는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이었죠.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함께 시대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방송이었습시다.”

그는 누구나 다 아는 JTBC 손석희 앵커의 매형이다. (예전에는 손석희 앵커가 그의 처남으로 불렸다) 말인즉슨 손석희 앵커의 누나가 그의 부인이다. 아내는 강원도 강원원주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가르친다.

술하에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연세대의 학전대학원에 다닌다. 아들 오영(28)군은 ‘1억 만들기보다 추억 만들기’가 아버지의 말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긴다. 주 PD는 “아내는 자신과 달리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라며 “인생을 통해 가장 절한 결정이 있다면 아내와 결혼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올해 우리 나이로 60세다. 그에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어쩌면 진부하기까지 하다.

앞으로 그는 기회가 되면 재능기부를 할 참이다. 사회로부터 받은 복을 나눠주고 싶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도움 되는 이야기를 자신만의 언어로 들려줄 계획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직장 관리자보다 ‘사람의 관리자’가 훨씬 잘 어울린다.

PD를 꾸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부탁했더니 돌아오는 답이 의외다. “화려한 옷이 자신에게 잘 맞을지 진지한 고민이 우선”이라는 거다. 적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은 성공할 수도, 더더욱 행복할 수도 없다고 단언한다.

PD는 시청자에게 행복한 시간표를 짜주는 사람인데,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느냐는 것이다.

/서울=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프랑스 파리에서 테베제(TGV)를 타고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달리면 인구 24만 명의 중소도시 릴(Lille)이 나온다. 우리에게겐 동화 ‘플랑다스의 개’로 잘 알려진 플랑드르의 중심지다. 산업혁명이 절정으로 치닫던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릴의 석탄공장 공복에선 연기가 멈추지 않을 정도로 번성을 누렸다. 하지만 릴의 ‘봄날’은 오래 가지 않았다. 많은 공장이 동유럽 등으로 옮겨가면서 ‘잘나가던’ 공업도시는 급속히 쇠락해 갔다. 1990년대에는 당시 인구 17만 명 중 3만여 명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떠났다. 이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성공신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본보에 연재중인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를 취재하기 위해 들른 릴은 기대 이상이였다. ‘2004 프로젝트’가 폐막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도시 곳곳에선 그해 축제의 현장들이 잘 보존돼 있었다. 프랑스에서 루브르 미술관 다음으로 규모가 큰 릴 미술관에는 관람객들로 넘쳐나고 구시가지의 낡은 건물을 개조한 갤러리는 젊은 작가들의 아트마켓이 열렸다. 특히 2004 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유럽역 앞 광장에 설치된 일본 작가 구사마 야오이의 ‘상그리라의 틀림’ 조형물은

프랑스 릴에서 비엔날레를 보다

슬픈 동네’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도 달았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문화도시’가 됐다. 바로 유럽문화수도 덕분이다. 지난 1985년 그리스의 멜리나 메르쿠리 문화부 장관의 제안으로 세상에 나온 유럽문화수도 EU가 매년 1~2개 도시를 순번제로 지정해 유럽의 문화 허브로 키우는 프로젝트다.

지난 2004년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된 릴은 ‘릴 2004 프로젝트’를 통해 회색도시를 되살려 냈다. ‘릴 2004’의 조직위원회는 낡은 설치물들을 예술작품으로 리모델링해 도시를 거대한 미술관으로 바꾸고 빈 공장이나 상가는 예술가들의 아틀리에로 재활용했다. 그 결과 1년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대도시로 떠났던 1만3000여 명이 되돌아왔다.

기자는 최근 ‘말로만 들던’ 릴의 릴의 제1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작가 특유의 물방울 무늬와 화려한 색채가 어우러진 6m 높이의 조각 작품은 삭막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지만 기자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조형물만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예술작품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이 그 어떤 ‘명작’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릴의 곳곳에 자리한 ‘2004 프로젝트’의 분신들은 시민들의 숨겨진 사랑방으로 각광받고 있었다. 릴의 사례는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를 되돌아보게 한다. 언제부터나 일회성 이벤트처럼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비엔날레의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축제가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감동을 누리고 있는 릴 시민들이 새삼 부럽다. ‘2004 릴 프로젝트’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편집부국장·문화전문기자〉

광주여성민우회, 성교육 강사 수강생 모집

광주여성민우회(대표 백희정)는 제5기 성교육 강사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몸과 섹슈얼리티의 이해’(안경주 전남대 인류학과 강사), ‘성매매에 대한 이해’(채숙희 광주여성의 전화 한울지기 소장), ‘성폭력, 그 의미와 한계’(김두나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성적 소수자의 성 체계’(박갑수전 레즈비언생애기록 연구소장), ‘성 관련법의 이

해’(이민아 변호사)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오는 7월1일부터 24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오전 9시30분~낮12시30분) 광주시청차 미디어센터 2층강의실에서 열린다. 회비는 8만원(민우회 회원 7만원)이며 모집 마감은 오는 27일까지다. 홈페이지(www.gjw.or.kr/gjwomen-link), 이메일(gjwomenlink@hanmail.net), 전화(062-521-1360~1)로 접수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

TV조선 특별기획드라마 **대탈출**

격동의 시대를 살아야했던 이들의 사랑과 야망!

최수종 손태영 류진 최철호 이인혜 독고영재 정호빈 4월 25일부터 매주 금·토 밤 11시 방송

박상면 홍일권 김진근 이종수 공정환 이정용 최규환 이기찬 현석 김민경 전수경 이철민 고명환 정명환 이영후 이원석 조영서 김권 김예원 윤홍빈 김현준